

한국 현대사회에서 샤머니즘 의식치료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연구

두남*, 김치용**

*동의대학교 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동의대학교 ICT공과대학 게임애니메이션공학 전공

e-mail : dunan8083@naver.com, kimchee@deu.ac.kr

A Study on the Cultural Value of Shamannistic Ritual Therapy in Modern Korean Society

Nan Du*, Chee-Yong Kim**

*Dep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

**Major of Game Animatio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요 약

샤머니즘 문화는 신과 소통하는 비이성적인 특징으로 인해 의식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 샤머니즘은 한국 현대사회에서 의식치료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문화적 연구 가치도 지니고 있다. 본고는 한국 샤머니즘의 구체적 실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샤머니즘과 주류 문화의 관계, 샤머니즘 실천이 한국 민족 문화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배후에 어떤 문화적 논리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샤머니즘의 의식치료 능력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비한 문화적인 가치에 관해 연구할 것이다.

1. 서론

“현대화”는 한국의 주된 의식 형태로 삶의 여러 곳에 침투되어 있어 주류 민중의 사고와 논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속하고 주목할 만한 발전과 강력한 의식 형태에는 쉽게 언급되지 않는 샤머니즘 현상이 잠복되어 있다. 한국의 샤먼 치료는 주류 문화에 의해 “무시”당하고 혐오를 받는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버티고 신비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그림 1. 샤머니즘의 법기

2. 연구 방법: 샤머니즘 실천사례

김 샤먼은 1931년에 태어났는데, 그녀의 외할머니가 바로 샤머니즘도 있다. 11살부터 그녀는 괴로움을 받고 악몽이 끊이지 않았으며, 몸이 몹시 허약하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점을 봐주었는데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했다고

한다. 17살 때, 외할머니는 그녀에게 샤먼 출마의식을 치러 주었고,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후 김 샤먼은 여러 차례 공연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학자들과 합작하면서 정부와 미디어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샤먼 무용과 음악을 공부하던 여학생은 김 샤먼의 지도를 받고 샤먼이 되기를 희망했다. 1981년에 많은 국내외 학자들과 미디어 업계 인사들이 여 박사를 위한 “진정한” 입문 의식에 참가하였고 여러 방송국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때부터 김 샤먼은 “무형문화유산 계승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미국, 호주 및 한국의 여러 극장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김 샤먼의 예술 아티스트라는 신분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샤먼 치료 활동도 보호를 받았다.



그림 2. 샤머니즘의 치료의식

3. 연구 내용: 샤머니즘의 패러독스와 문화치료

참고문헌

한국 사례를 볼 때 필자는 샤머니즘의 존재는 세 가지 패러독스를 가진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패러독스 특징이 샤머니즘에게 치료의 힘을 부여하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선 “비이성적”인 특징이 있다. 샤머니즘 세계와 주류 세계는 분명히 나뉘는데 한 측은 어둡고 은밀하며, 불결한 “비이성적”인 반면, 다른 한 측은 밝고 진보와 과학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것이다. 주류 문화의 경계에 놓이기 때문에 신령과 소통하는 “비이성적” 특징이 치료의 힘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미신”이라는 패러독스를 가진다. 주류 세계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샤머니즘은 “악귀를 쫓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주류 문화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양자 간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더 밀접해진다. 따라서 주류 세계의 신속한 발전과 함께 샤머니즘 실천도 이와 함께 더 널리 응용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라는 패러독스를 기반으로 한다. 샤머니즘의 일부 내용은 공연의 형식으로 “비 물질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샤머니즘은 민족에 대한 인정으로 접착제가 되어 홍보의 명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1] 范冬敏, “韓國薩滿教与文化治療”[J].北方民族大学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 (5).

[2] 강준수, “강화의 샤먼문화를 통한 축제 콘텐츠 고찰,” 글로벌문화콘텐츠, (36), pp.1-17, 2018

[3] 박소란, [문화인물] 연극연출가 이윤택 : 내 화두는 ‘동시대’, 그 경계에 선 ‘샤먼’으로 살고 싶다. 민족 21, 136-141, 2007

[4] “Shamanic Healing for Veterans with PTSD: A Case Series”, *EXPLORE*, Vol.13, Issue 3, May - June 2017, pp.207-217, 2017

[5] “Journey Into Healing: The Transformative Experience of Shamanic Healing on Women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EXPLORE*, Vol.6, Issue 6, November - December 2010, pp.371-379, 2010



그림 3. 샤머니즘의 공연

4. 결론 및 향후 연구

궁극적으로 샤머니즘 세계와 주류 세계는 마치 용수철의 양끝과도 같이 각각의 논리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탄력을 얻은 현대 주류 세계의 신속한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수철의 과도한 팽창과 함께 “미신”으로 치부되어 지하 상태에 놓인 샤머니즘 문화에 점점 더 많은 생존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차이와 대립으로 인하여 샤머니즘 세계는 “비이성적”인 특징으로 문화 치료의 힘을 가지게 되고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다.